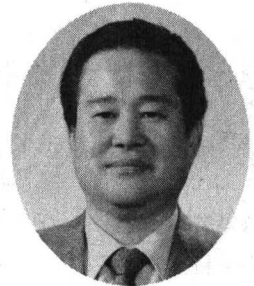


# 歷史的 形成背景을 통해본 醫療의 本質



許 程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教授〉

## 1. 醫의 歷史

과거의 의학사를 되돌아볼 때 구라파에서도 중세기까지는 의사 내지 의료종사자의 사회적 지위를 보건대 지배계급이나 상류층에 속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이스와 로마의 빛나는 의학발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의료행위는 대개 자유인이 아닌 노예들에 의해 관장되는 경우가 많았고 로마 교황의 侍醫중에는 유대인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지능과 기술이 두드러졌다는 사실도 그 반증으로 들 수 있겠지만 유대인을 한사람의 인격을 갖춘 인간이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유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아담·스미스」가 제창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발전과 경제의 흐름이 좌우되면서부터 의사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 시작했다.

그리이스에서도 의료업은 시민의 자유로운 직업에 속했지만 당시의 명의 히포크라테스도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고 해서 의료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술은 기술 중 가장 고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기술로 평가된다」고 한탄한 바 있다.

따라서 당시에도 의사의 신분은 높지 못했다. 그 후 로마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의료업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이스인 노예들의 손에 위임되고 많은 의사들이 자유인이 아닌 노예인 경우가 많았다.

귀족의 병을 치료해 주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의사가 된 사람도 있었다. 실제로 근대의 과학 발전에 공헌이 컸던 불란서의 외과의 암부로아스 파레도 과거에는 미천한 노예였다.

물론 모든 의사가 노예출신이었던 것은 아니다. 천년 넘게 중세의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던 갈렌은 상당한 로마시민이었지만 이러한 사람은 그 숫자가 많지 않았고 실제적인 환자치료보다는 이론적인 학문연구에 많은 힘을 쏟았던 이른바 學醫로서 동양문화권의 儒醫와 상호 일맥상통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유교경전을 봐도 동양에서는

「醫는 爲儒者之一事」라 해서 지식인은 君子라면 누구나 의료지식을 갖추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대부분의 의학발전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로마인들이 의료업을 노예에게 맡긴 것은 그리스인의 직업관에도 관계가 있었다. 귀족과 평민의 분리와 노예제도는 서양에선 그리스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인은 사상이나 예술을 귀족 같은 사람들이 하는 고상한 직업으로 여겼고 각종 도구나 기계 같은 생활수단의 제작은 평민이 하는 일이라 여겼으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든가 각종 技藝는 가장 천한 일이라 생각해서 노예들이 하면 된다고 여겼다.

로마인이 의사들을 대부분의 경우에 노예로 충족시킨 것은 이와 같은 그리스인의 직업관과 함께 그리스를 침공해서 비대해진 로마인으로선 그리스 의사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

論語에 나오는 「君子不器」思想과도 일맥상통하는 느낌을 준다. 물론 「君子不器」란 엄격한 의미에서 技藝를 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가지에만 정통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도 예로부터 君子가 의료전문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중세기에 접어들자 구라파에선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되었다. 중세기의 신분사회속에서도 성직자와 법률가 같은 전문직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의사도 이와 같은 전문직으로 점차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의료의 과학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사의 다른 분야보다 과학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또한 國富論에서 「아담·스미스」는 성직자, 법률가 그리고 의사는 명예로운 자유직업인으로서 사회의 여러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건강이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는데 합당한 보수와 사회적 지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2. 동양이 지닌 醫의 전통

그러나 동양에선 이와 같은 사회적 경향은 19세

기 후반에 이르도록 나타나지 못했다. 의료는 유식한 상류층의 「方技」나 「餘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했다.

이 「方技」란 말이 중국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천년경에 건국한 것으로 보고 있는 周나라때부터 비롯된다.

이 왕조의 官制를 기록한 「周禮」를 보면 중앙행정과 각종 사물을 다스리는 「天官」, 교육과 조세,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地官」, 제사와 의례를 관장하는 「春官」, 軍政을 다스리는 「夏官」 소송을 다스리는 「秋官」 그리고 土木과 공작을 다스리는 「冬官」으로 이루어지는 六官의 제도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이 중 「天官」에 속하는 屬官 60중 하나에 醫官(食醫, 疾醫, 藥醫, 獸醫 등)의 직제가 있고 이러한 醫官의 직제를 가진 자에 方技란 말이 쓰여지고 있다.

周나라가 멸망한 후 약 500년간의 春秋戰國時代를 거쳐서 나타난 秦나라 始皇帝는 長生不死의 藥方을 연구하는 神仙術을 좋아해서 「方士」를 두었다는 사실이 「史記」에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漢書」의 「藝文志」를 보면 方技에 관한 정의가 나오는데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는 기술을 말하며 醫經, 經方, 房中術 그리고 長命術의 네 분야가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보더라도 흔히 우리나라 朝鮮時代의 官制에 卜家나 陰陽家와 醫員을 유사하게 배치해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醫」의 古語는 「醫」이다. 실제로 南宋의 大儒 朱子는 孫思邈에 관련해서 「그는 唐나라의 유능한 文章博士였지만 직업으로서 醫療에 관여했기 때문에 接人階級으로 格下되어 애석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흔히 지식된 자가 부모에게 보답하는 길을 「孝」라 불리왔고 신하된 자가윗사람에게 다하는 도리를 「忠」이라 했으나 동양에선 전통적으로 孝가 忠보다 앞서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와 같은 儒敎의 孝思想은 또다시 「事親孝養」을 위해 끝까지 부모에게 孝를 다하기 위해서는 「斷指孝養」이 당연한 사람의 도리라 일러왔다. 따라서

烈女를 기리는 旌門 보다는 孝子碑가 앞서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와 같은 事親孝養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자식된 자는 어느 정도의 醫學知識을 갖도록 권고되어 왔다. 이것이 徐春甫가 쓴 『古今醫統』에 나오는 「醫는 爲儒者之一事」란 말로 이어지고 醫術 연구에 儒者階級의 공헌이 컸다는 사실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金나라때 張鍾五가 撰한 『儒門事親』 15권은 글자 그대로 선비된 자가 부모를 섬기기 위해 알아야 할 醫書란 뜻인 것이다.

이와 같은 「醫術은 儒者의 一事」란 사고방식은 朝鮮朝 500년을 통해 더욱 사회적으로나 강조를 받게 되었다.

지배계층인 文官과 武班으로 이루어진 양반은 정치와 경제의 실권을 쥐고 王政은 이 양반계급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에게는 전통적인 朱子學에서 권장되는 經典연구에 전념해서 과거를 보는 것이 立身揚名하는 길이었다.

다음 계층인 中人들이나 양반의 庶孽은 醫學, 외국어, 法律, 天文, 地理와 같은 雜學을 공부하고 雜科에 응시해서 雜職에 종사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醫療나 동양의 유교적 전통은 醫의 양면성을 존속시키게 만들었다. 儒者로서 「事親孝養」하기 위한 餘技로 시작된 의학과 실제적인 醫療를 담당하는 醫療專門人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朝鮮朝 500년의 역사를 통해 輔國崇祿大夫 正一品이란 자리에 오른 醫療人은 宣祖와 광해군 당시의 許浚선생뿐이었고 의료인중에 양반계급과 대등한 위치를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직된 테두리속에서도 醫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몇가지 전통이 있었다. 醫는 生死에 관여하는 重大事이므로 施湯하는 경우에 웃사람이나 부모님의 看病은 하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아랫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여겼고 施藥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히 유념할 것을 강조해서 「醫不三世면 不服其藥」이라고 했다.

즉 3대째 醫員을 하지 않은 사람의 약은 쓰지 말라고 해서 약화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힘썼던 것이다.

그리고 「君師父一體」란 옛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스승과 제자간의 두터운 인간관계는 「長幼有序」의 전통과 함께 의료윤리의 근간을 형성했던 것이다.

의료계에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丙子修好條約후 첫번째로 일본에 간 修信使 金永騎를 따라 의원으로 수행했던 朴泳善은 그의 제자인 池錫永선생이 牛痘法에 관심을 가진 것을 留念해서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 「種痘龜鑑」한질을 구해와서 池錫永선생에게 넘겨줌으로서 우리나라 종두법 발전에 계기를 만들어 준 바 있었다.

불행히도 16세기 이후 구라파에서 싹트기 시작한 과학적 근대의학은 이와 같은 전통을 거의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

보수적이고도 비합리적인 계급의식이나 「君子不器」란 기술천지사상은 버려야 하겠지만 오늘날에도 「事親孝養」하고 「君師父一體」하며 「長幼有序」하는 유교적 전통은 逆機能보다는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가 크다는 順機能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야겠다.

아마도 그것은 앞으로 극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양문화 내지 과학의 공통과제라 생각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윤리도 파악돼야 하리라 여겨진다.

흔히 醫는 仁術이라고 한다.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또다시 徐春甫가 쓴 의서 「古今醫統」 전50권 중 제3권에 들어 있는 「醫道」에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唐나라 高宗이 명해서 撰한 「新修本草」나 明나라때 李時珍이 쓴 「本草綱目」을 보면 唐나라 高皇帝나 肅皇帝가 醫業을 중시해서 本草書 편찬에 힘쓴 뜻이 「仁心」, 「仁術」, 「仁情」 그리고 「仁聲」등의 말로 표현되어 있다.

과연 「仁」이란 무엇일까. 論語에 나오는 朱子の 주석에 따르면 사람이 걸어가야할 正道가 「仁」이라고 했다.

論語의 「顏淵篇」 제12를 보면 孔子의 제자인 樊

遲가 仁이란 무엇인지 공자에게 묻는 구절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자는 간단명료하게 『仁은 愛人.』이라고 가르친 대목이 나온다.

좀 오래된 얘기로 또다시 거슬러 올라가지만 히포크라테스의 偉業을 의학사적으로 정리해 보건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자진료를 강조했다는 일면도 있지만 히포크라테스가 강조한 「히포크라테스의 誓詞」와 「箴言」으로도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구라파에 싹트기 시작한 패기 넘치는 器械論的 의학은 도전과 개혁의 원리만을 강조했다 뿐 전통적인 윤리적 측면을 등한시 해왔다.

심지어 프란시스 실비우스나 헬몬트 같은 醫療化學派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현상은 부패와 발효란 두가지 화학적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으며 쌍토리우스나 보렐리 같은 醫療物理學派에 따르면 인간의 생리현상은 어느 것이나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심지어 이들은 사람이 체온을 유지하는 물리적 힘은 혈액속에 들어있는 혈구가 충돌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기계론적 의학사상은 결국 또하나의 학문적인 반동으로서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독일을 중심으로 낭만주의 의학의 탄생을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 가자는 회귀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찌기 파스퇴르가 『학문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했듯이 의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의학자에

게는 조국이 있고 지켜야 할 의료윤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2차대전 이후 일본의 경이적인 계속적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동양사상에서 찾고 있으며 한국, 대만, 홍콩 그리고 중국의 경제발전을 전통적인 유교사상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의학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뿌리찾기 운동이 생겨나야 하리라 여겨진다.

최신 의학지식만이 인간적이고도 합리적인 의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료계의 가장 큰 골치거리로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경향에서 비롯된 의료과오소송 같은 좋지 않은 경향을 사전에 막아내기 위해서도 선배와 선생을 어렵게 여기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아랫사람들의 문제점을 따뜻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전통을 되살려 나가야 하겠다.

나는 가끔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 여러가지 경전을 읽을 때가 많다. 그중에서도 論語의 學而篇에 나오는 구절은 아직도 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다. 『弟子入則 孝하고 出則悌하며 謹而慎하고 汎愛衆하되 行有餘力이면 則以學文이니라.』

간략하게 그 뜻을 풀이해 본다면 모름지기 제자 된 자라면 집안에 들어와서는 효도에 힘쓰고 밖에 나가서는 웃어른에게 공손하고 삼가고 믿음직하게 행동하며 많은 사람을 사랑하되 여력이 있거든 글을 배우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글이라 말한다면 필자가 너무 고루한 것일까. \*